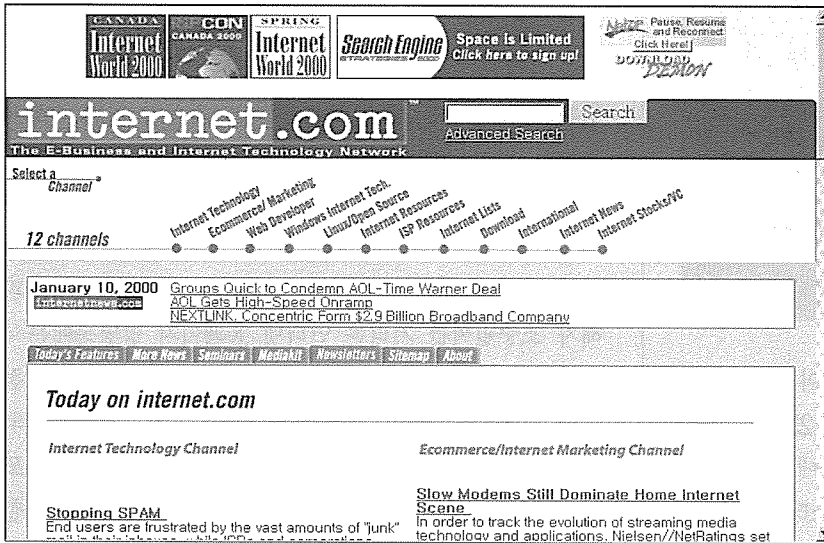


세계적 뉴스 전문 사이트, 인터넷닷컴사 한국 진출



미국 인터넷닷컴사와 한국의 미래산업은 코리아인터넷닷컴사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래산업이 80.1%, 인터넷닷컴이 19.9%의 지분을 출자하고 총자본금 70만달러(한화 8억4천만원)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라이코스코리아의 관계자는 코리아인터넷닷컴은 인터넷관련 뉴스채널과 주식채널 등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코리아인터넷닷컴사의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들은 공개 채용해서 올 3월부터 뉴스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Internet.com은 인터넷 업계와 인터넷 기술 전문가들, 웹 개발자들 그리고 웹 사용자들에게 전 세계의 생생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으로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며 자산규모는 약 15억달러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일본·중국·캐나다 등 총 12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며, 2백만이 넘는 방문객이 매달 9천만 페이지뷰 이상을 기록하는 Internet.com은 89개 웹사이트의 네트워크, 71개의 이메일 신문, 1백1개의 토론 포럼 그리고 75개의 엄선된 이메일 토론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웹 사이트 조회 화면, 이메일 신문 조회 화면, 이메일 토론 리스트 조회 화면을 포함한 전체 화면은 이제 매달 1억5천만건의 조회수를 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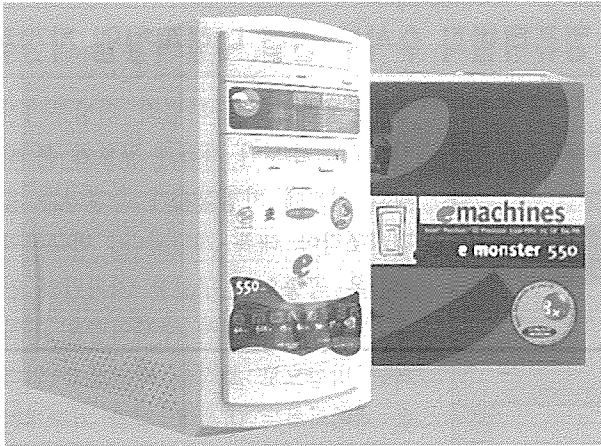
컴퓨터범죄 수사부 신설.대형지청인 차장증설

서울지검에 컴퓨터범죄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수도권 지검과 규모가 큰 지방의 지청에 차장직제가 증설되는 등 검찰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구성된 기획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일선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검찰 기구개편 잠정안을 마련, 18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부 등과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기구부터 개편하게 될 것”이라며 “2월 정기인사와 신규검사 임용때 신

설조직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6개 형사부가 있는 서울지검에 형사7부와 컴퓨터 해킹 등 신종범죄를 전담하는 ‘컴퓨터범죄 수사부’ (가칭)가 마련되고 대검에도 전국적으로 컴퓨터 범죄를 관할하는 과(課)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부장검사 수는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고 외사·공판부는 1차장 산하로, 조사부는 3차장 산하로 조정된다. 또 차장검사가 한명 뿐인 인천지검에 2차장직이 신설되고 지방지청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순천지청에도 차장직제가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 조직은 대폭 줄어들어 형사·강력부 산하 1~2개 등 일부 과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형사부와 강력부의 통합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인력을 크게 줄이기로 하고 이번 주 직원인사에서 사무관 6~7명을 우선적으로 일선 지검에 내려보낸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키로 했다.

삼보, 1천달러대 PC '이몬스터'로 고가 PC시장 본격 진출

삼보는 저가PC '이타워'가 미국시장에서 판매안정기에 진입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말부터 8백99달러대



의 증가모델 '이몬스터-550'을 발표했다. 이 제품이 연말 '이머신즈'의 데스크탑PC 판매 중 약 25%에 달하는 등, 중고가 PC시장 진입에 성공을 거둠에 따라, 1월 중순부터는 1천달러대의 고가모델 '이몬스터-550r' (판

★ '이몬스터' 시리즈 사양표 ★

모델명	이몬스터 550	이몬스터 550r
CPU	펜티엄 III 550MHz	
HDD	15GB	
메모리	64MB	
DVD	8배속	
CD RW	X	O
모뎀	56Kbps	
가격	\$ 899	\$ 1,099

매가격 - \$1,099)을 본격 공급한다. 파워유저용PC '이몬스터-550r'은 현재 미국 PC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보이고 있는 비디오 게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몬스터' 시리즈는 모두 펜티엄 III 550 이상의 CPU와 DVD드라이브 기본 탑재, Voodoo3/ATI Xpert/nVIDIA 등 고급사양의 비디오 카드를 적용하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1천달러선의 PC중 가장 나은 사양을 갖추고 있다.

'사이버 시위' 폭발

소리없는 '사이버 시위'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연말 헌법재판소 서버를 다운(down)시켰던

군필(군필) 가산점 논란 사이버 시위는 9일 정부여당의 가산점 제도 유지 결정으로 다시 불붙었다. 여성들은 곧바로 '시위 현장'으로 달려나와 국회의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만 '현재 판결을 번복하려는 거냐'는 내용의 글을 1백건 이상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5일 현재의 홈페이지 「열린마당」은 군필 가산점 위헌 결정에 분노한 남성 네티즌에게 해킹당해 접속이 중단됐었다. 열린마당은 이후 1주일간 복구와 다운을 거듭했다.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범행 용의자를 실수로 출국시킨 검찰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피해자 조중필씨를 기리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명록에는 4천여명이 서명했고, 게시판에는 '담당 검사에게 항의전화를 걸자'는 글들이 가득했다. 담당 검사는 3주간 항의전화에 시달리느라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했을 정도다. 배일도 노조위원장이 무분규선언을 한 서울지하철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은 '배 위원장의 「무분규 선언」은 일방적'이라는 조합원들의 글이 떠올랐고, 일부 조합원들은 「Anti 배일도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지난해 12월16일에는 국회의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한때 다운됐다. 이날 이기호경제수석이 「코스닥 건전화대책」을 발표한 뒤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자 투자자 1천여명이 국회의원회 사이트로 몰려가 시위를 벌인 때문이다. 사이버 시위는 군중 동원의 신속성, 시위자들의 균질성으로 인해 거리의 시위보다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도메인(domain) 이름 사기공모 혐의를 받은 한 의류업체가 1천여 네티즌들의 항의 이메일 발송 등 단결된 시위에 굴복, '당선 상금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온라인 머드게임 「리니지」이용자들이 게임에 캐릭터를 이용해 초유의 게임 내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게임속도가 느려지고 서버가 자주 다운되는데 대한 항의였다. 운영업체는 괴물 캐릭터를 보내 시위를 벌이던 캐릭터를 '진압'하려다 실패, 결국 회선 증설을 약속했다.

같은 취미 가진 사람 찾아주는 '똥넷'

인터넷의 포털사이트에 널려있는 동호회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애드타워는 인터넷동호회를 찾아주는 사이트 '똥넷'(www.ddong.net)을 개설해 1월 12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같은 취미를 가진 네티즌 모임을 찾을 때 유용하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에는 4만5천여개의 동호회가 개설돼 활동하고 있다. 똥넷은 이 가운데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갖고, 모임 때마다 40명 이상 참여하는 동호회 1만5천여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똥넷은 동호회를 이름과 주제를 이용해 찾을 수 있게 한다. 주제별 검색창에 와인을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와인과 관련된 동호회를 찾아 보여준다. 동호회에 첨부된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동호회 사이트로 접속된다. 똥넷을 이용하면 외국 인터넷 동호회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미국·일본·중국·홍콩·싱가포르 동호회 정보를 찾아보고, 직접 접속할 수 있다. 애드타워는 똥넷을 통해 각 동호회의 정기모임 장소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또 매달 10개의 동호회를 뽑아 인터넷 앨범을 제작해줄 계획이다.

제공하고 있다. 유니텔의 인터넷 사이트인 웨피의 경우도 20MB를 제공하지만 유료 서비스인 유니텔 회원인 경우에만 20MB를 제공하며 유니텔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10MB를 제공한다. 무료 이메일 용량은 10MB인 셈. 인티즌은 또한 메일 발송시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도 무제한으로 풀었으며 첨부 파일 용량도 10MB로 국내 최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부분 무료 전자메일 서비스들이 2MB 정도의 첨부 파일만을 보낼 수 있게 한 것에 비해, 인티즌의 첨부 파일 서비스는 5배가 더 큰 셈.

첨부 파일 용량을 늘린 이유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문서의 경우 3MB를 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요즘 인기 있는 MP3 파일이나 홈페이지 제작 그래픽 파일들도 용량이 커서 첨부 파일 용량을 5MB 이하로 묶어놓을 경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한계가 많기 때문. 첨부 파일 숫자의 제한을 없애고 용량을 늘려 네티즌들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인티즌의 목적이다. 이와 함께 인티즌은 회원들이 주고 받는 메일을 1년간 백업(사본 저장)해 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1년간 이메일 무료 백업 서비스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회원들

의 실수로 중요한 메일이 지워지더라도 회원들의 메일 데이터 자체는 보존해 주겠다는 것. 이메일 1년간 무료 백업 서비스는 인티즌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서비스이다.

미국에서는 사이버 증권 거래와 사이버 금융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메일이 거래상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백업 서비스가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인티즌, 최대 메일용량 제공



국내 허브사이트 인티즌(www.intizen.com)이 무료 전자우편 용량을 30MB로 확장, 국내에서는 최대 용량을 네티즌들에게 제공한다. 현재 무료로 가장 용량이 큰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업체는 네오라이프로 20MB를

올해 인터넷 쇼핑물 시장 전망

국내 인터넷 쇼핑물 업체에 새 천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주요 인터넷쇼핑물 업체가 사상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승자와 패자의 경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을 이끌었던 기업대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되고 업체 간 사활을 건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이같이 주요 업체가 흑자를 바라보는 배경은 우선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쇼핑물 구매 고객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손익분기점 달성=96년 데이콤과 롯데백화점이 인터넷 쇼핑물을 개장하면서 촉발된 인터넷비즈니스 시장은 비록 일부 업체지만 올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비록 한자릿수 정도의 소폭이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업체가 나올 전망이다. 시장규모에서도 지난해 2천5백억원 수준에서 올해 6천억원을 내다볼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물 활성화 = 기존 종합몰에 이어 특정 아이템만을 다루는 전문물 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기 업체들이 쇼핑물시장에 적극 참여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해 이미 종합쇼핑몰 업체도 전문물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티켓, 북, 게임파크 등 5개의 전문물 외에 CD전문매장인 CD파크와 아동용품 전문매장인 키즈파크를 열 예정이다. 한솔CSN도 웨딩, 골프, 여행과 같은 생활서비스 부문을 별도 사이트로 독립시킨다. 삼성물은 자동차, 가구, 여행, 서적 등을 다루는 특화된 전문물을 개설기로 했다.

*중소 쇼핑물의 제휴와 합병 = 유통과 물류, 15만~20만중에 달하는 메가 아이템을 갖춘 대기업에 대해 중 소기업은 제휴나 합병을 통해 공동마케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들이 일제히 인터넷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중소쇼핑물 업체들의 마지막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통합 =쇼핑물 고객을 잡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커머스와 커뮤니티, 콘텐츠의 구분이 없어질 전망이다. 회원 확보를 위해 쇼핑물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각종 상품정보를 제

공하는 등 지금까지의 사업 경계가 점차 사라진다. 또 이런 통합화작업은 쇼핑몰 업체가 직접 사이트를 개설하는 비생산적인 방법보다는 콘텐츠 혹은 커뮤니티 특성을 갖춘 사이트와 제휴하는 등 윈윈 차원에서의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굿모닝증권, 사이버거래 통합서비스 개시

가입만 해도 엄청난 경품!

Welcome to **goodi**

생생情報 온라인 증권투자
goodi 세상을 여행해 보십시오...

굿아이콜센터 365일 x 24시간 T.1588-1122

광쟁 생정보! 새로운 개념의 투자정보를 만나보세요!
goodi RESEARCH CENTER

Consensus
새천년 새로운 개념의 종목분석
Cyber Research Highlight

일일시황 : 수급여건상 부담은 있으나 성장전망위주의 대응전략 지속
뉴스분석 : 1월 11일(화) Daily 뉴스분석

시장지표 2000.01.11 10:05:00

종합주가지수	998.79	▲	11.5
KOSDAQ	241.38	▲	10.3
KOSPI200	125.72	▲	1.6
선물(10103)	117.85	▼	5.4
환율(\$)	1,134.70	▲	0.8
NIKKEI	18,721.80	▲	528.3

시황 스크린

[2000년 1월 11일]
일지 (10510)
◆ 평가치의 4천억원 넘어...
◆ 시구사연 진출로 매출 대폭 증가
◆ 통신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개시, 광케이블, SCR 등의 매출이 호조.
전체 매출이 전년비 26.7%가량 2,850억원이 전망

굿모닝 추천종목

굿모닝증권은 인터넷이나 PC통신, 전화 등 각종 통신 방법 가운데 편리한 기기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 트레이딩시스템인 '굿아이' (goodi)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설치용 CD나 프로그램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웹 (www. goodi.co.kr), PC용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용통신망, 자동응답전화기(ARS, 1588-1122), 휴대폰 등 가운데 투자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요원이 필요할 경우 거래대금의 0.15~0.25%를 수수료로 내야하지만 상담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0.13~0.20%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특히 굿모닝증권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7차례까지는 거래시 매매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금액에 따라 보너스포인트를 적립해 여행상품권과 노트북PC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굿아이의 계좌개설은 굿모닝 증권외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①7